

스포츠 / 문화



단행본 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전자도서관 접속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

‘독·e-book의 계절’은 언제 오나 단행본 대비 전자책 수 3.8% 수준

전자 도서관 운영 점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독서의 계절 가들이 성큼 찾아왔다.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의 열람실은 더욱 붐비고, 필요 도서를 대출하는 학생도 늘어난다. 하지만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의 1년간 전체 단행본 대출권수는 감소추세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201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는 연간 449,868권, 2012년 394,458권, 2013년 381,670권이 대출돼 지난 3년간 전체대출권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다. 2011년에는 연간 340,852권, 2012년 293,373권, 2013년 277,738권으로, 단행본 대출이 줄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2013년 서울캠 전자도서관 접속 횟수는 전년도 대비 160,700건 증가했다. 국제캠 역시 홈페이지 접속 건수 산출방식이 변경되기 전인 2011년과 2012년 사이, 전자도서관 접속횟수가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서울캠 기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자책 로그인 횟수도 2011년 27,747회, 2012년 32,988회, 2013년 81,665회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단행본’보다 전자책(e-book)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자책 이용 저해 요인

이용불편(30%) 책 부족(22%)

하지만 이런 추세와는 달리 전자책 이용 환경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 2013년 기준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보유한 국내책 장서는 1,959,330권인데 비해 전자책은 국내책 장서 수 대비 전자책 수는 3.8% 수준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검색이 지원되지 않아 전자도서 제조업체별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한다.

매년 도서관 이용자 DB 교육을 실시하지만 전자책 이용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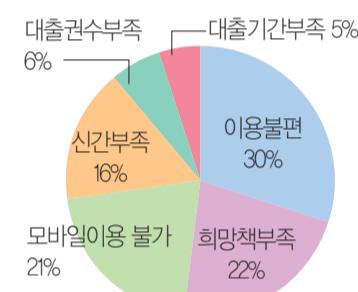
도 나온다. 김예영(철학 2014) 양은 “이용법을 따로 교육받은 바가 없고 아는 선배에게 전해 듣고 사용해본 적이 있다”며 “책을 검색했더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가 많아, 그 이후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캠 중앙도서관이 지난해 9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이용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이용불편’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희망 책 부족’이라는 응답이 22%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결국 앞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전자책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주변 환경은 전자책에 더 적합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매년 폐기되는 책 1만 8,000여 권
공간부족, 전자도서관 고민해야

‘공간’이라는 문제를 감안해도 전자책 중심의 도서관운영은 더욱 필요하다. 지난해 폐기한 단행본 수가 1만 8,000여 권에 달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용할 공간이 없기

〈전자책 이용 저해요인〉



때문이다. 물론 서울캠 중앙도서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간 내에 이뤄질 사업이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예산의 경우 전자책에 따로 배정하지 않고, 단행본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측은 “전자책의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계획을 세워 전자책의 공급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필요성에 비해 전자책을 중심으로 한 ‘운영’은 갈 길이 멀다. 독서의 계절이 깊어질수록 ‘변화’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축구부 왕중왕전 진출

U리그 전반기 리뷰

김유림 객원기자 csyong1617@naver.com

축구부가 지난 10일 명지대와의 ‘2014 카페베네 U리그(U리그)’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자력’으로 올라가 그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의 왕중왕전을 미리 예상해 보기 위해, 현재 축구부의 전력을 분석해봤다.

#1. 단단한 공격 작업

우리학교의 김광진 감독이 말한 올해의 키워드는 조직력이다. 타 학교에 비해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팀축구’는 포메이션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김 감독이 주로 꺼내든 카드는 4-2-3-1이다. 4-2-3-1 포메이션은 미드필드진을 두텁게 가져가며 패스 플레이를 해나가는 시스템이다. 이 중심에는 주장 엄진태(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있다. 볼기핑력과 패싱력, 그리고 넓은 시야까지 결합한 엄진태 선수는 탄탄한 빌드업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가능케 했다.

#2. 날카로운 측면 공격

중앙이 두텁고 안정적이라면 측면은 빠르다. 엄진태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배급해주면 측면 공격수들이 빠른 속도로 공을 낚아채 드리블 돌파에 이어 슈팅을 하거나 크로스를 올려왔다. 김정세(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공간침투에 이어 짧은 크로스를 올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밖에 전반기 오른쪽 윙백을 맡았던 김한솔(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나, 재활 끝에 복귀한 유동원, 김성훈(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 역시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3. 전방의 루카들

축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골을 만들어내는 1선과 2선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고승범(스

포츠지도학 2013) 선수의 압박이 뛰어나다. 또한 박인혁, 이건철(이상 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들은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큰 신장을 활용해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눈에 두드러지는 스타플레이어는 없다. 하지만 개개인의 장점을 갖고 선수들이 모여 특유의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진가는 시즌 동안 빛났다. 왕중왕전에서도 우리학교만의 ‘팀플레이’를 기대한다. 아래는 축구부 김광진 감독과의 일문일답.

- 왕중왕전 진출이 확정됐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올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해였다. 선수도 26명밖에 없었기에 자원이 부족했다. 이처럼 여건은 어려웠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더불어 코칭스텝과 선수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됐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리그를 마무리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

- 시즌 동안 어떤 선수가 주문한 역할을 가장 잘 소화했나?

A. 모든 선수가 다 잘해줬다. 특히 주장 엄진태 선수를 비롯해서 김정세, 김성훈, 유동원 4학년 4인방 선수들이 제 역할을 소화해줬다. 덧붙여 고승범 선수와 박정수 선수가 깨소금 역할을 해줬다.

- 왕중왕전까지 남은 3주 동안 무엇을 준비할 계획인가?

A. 우선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수비할 때 전방 압박, 틀을 맞추는 게 부족하다. 공격 루트 또한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왕중왕전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

대한민국 대표 세탁전문 브랜드 크린토피아 ONLY!!

국가가 인정한
4년연속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1등급
(2011~2014, 중소기업청 주관)

전국 120여개 본지사 및 2,200여개 대리점



2014 중소기업청 주관
4년 연속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1등급 선정